

— 알립니다 —

본지 6월호(제554호) 위원회개최 현황에서 「감리제도 개선 간담회」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감리제도 개선간담회」(15.5.27)의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관한 협회 정책방향에 관한 건
  - 민간 감리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방문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함.
- 제3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 건축사법에 따라 대표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계 소식

### 대한건축사협회, 네팔 지진피해복구 성금 2,357만원 기탁

우리협회는 7월 1일 네팔건축사협회에 네팔 지진피해복구 성금 2,357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 2,357만원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우리협회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 건축사 회원 등이 2개월 간 펼친 모금 활동으로 조성됐다.

우리협회는 피해지역인 카트만두의 복구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피해복구 현장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네팔건축사협회에 직접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기술적인 자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단체들과 연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협회는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지원금 2천만원과 2011년 일본 지진 피해 구호지원금 2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건축전문가단체로서 국제사회의 재난구호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대한건축사협회, 변호사 3명·회계사 1명 자문위원으로 위촉



우리협회는 6월 이사회에서 협회 자문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 협회 회장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협회 조충기 회장과 윤혁경·권병조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자문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최상철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박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황용현 회계사(천지회계법인)이다. 4명의 자문위원은 건축사 회원들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주덕 변호사는 “사고발생시 공무원들이 무조건 건축사만 처벌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상철 변호사는 “법정단체인 협회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충기 회장은 “앞으로 건축사와 건축사협회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답변했다.

### 대한건축사협회, 국회 보좌관들 대상 ‘건축문화진흥’세미나 열어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대상으로 건축을 알리는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5일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건축문화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조충기 회장, 권병조 부회장과 강사로 류춘수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가, 비서관 및 보좌관은 조남혁 비서관(정성호 국회의원실), 송경민 비서관(민홍철 국회의원실), 전재용 보좌관(신기남 국회의원실), 김주희 비

서관(변재일 국회의원실)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평소 건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좌관들의 요청에 의해 마련하게 됐다.

류 건축사는 강연에서 국내 건축의 아름다움과 건축사 업무의 고유성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류 건축사는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한계령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과 한국적인 것의 아름다움 및 고유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건축사 업무에 대해 강연이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국민이 건축사의 전문지식이 아닌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 건축사의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건축주를 설득하는 일이 되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전문가의 말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연 후 토론회에서는 협회 관계자들과 보좌관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재용 보좌관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사의 낮은 위상은 국민은 물론 건축사도 함께 노력해야만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남혁 비서관은 건축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건축을 더 알 수 있도록 본지 배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15기 교육 실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15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9월 3일(목)부터 12월 17일(목)까지 매주 목요일이며, 교육생은 건축사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CEO 및 이와 동등한 자격자이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1일 3시간 16주로 총 48시간이며 매주 18시 30분부터 21시30분까지이다. 교육비는 100만원(협회 정회원 80만원)이며,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편접수나 FAX(02-523-2284)로 접수후 교육비를 입금(국민 484201-01-294926 대한건축사협회서울건축사회)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2-587-5752, 7061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관, 건립공사 기공식 열려**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관 건립공사 기공식이 지난 7월 1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건립부지에서 열렸다. 회관 건립공사 설계는 지난 2014년 설계경기 공모에 당선된 손숙희 건축사가 맡았다. 올해 3월 건축허가를 받고 10월 말 사용승인 예정이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건축사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대구 라온제나호텔(7층 컨벤션홀)에서 회원 5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건축사 한마음전진대회’를 지난 6월 30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신임집행부 출범에 따른 회장 공약사항 이행 및 협회발전 방안과, 건축사의 권익 및 생존권확보를 위한 현안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과 협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도 상반기 전국건축사등반대회 열려**



지난 6월 13일 2015년도 상반기 전국건축사등반대회가 충북 괴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 동호회 회원 및 가족 3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는 산막이 옛길을 시작으로 등잔봉-한반도전망대-천장봉-삼성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됐다.

대한건축사 등산동호회 회원은 1,030명으로, ‘등산으로 하나 되자’는 목표 하에 국내외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협회 활동 및 건축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 9월 5일 시행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이 지난 6월 3일 발표됐다.

시험일자는 9월 5일(토)이며, 장소는 8월 18일에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8일(수) 9시부터 7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다.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이며, 합격예정자 발표는 11월 6일이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가 지난 6월 5일 발표됐다. 총 3,952명이 응시한 가운데 18.7%인 739명이 합격예정자이다.

## 2015년도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

2015년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이 지난 6월 19일 발표됐다.

1차 시험(필기) 일자는 8월 23일(일)이며, 원서접수기간은 7월 1~10일까지이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9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2차 시험(실기)은 12월 6일(일)에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접수기간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접수페이지(bea.kemco.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1차시험이 건축물에너지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이며, 2차는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이다. 건축사는 1차시험에서 건축환경계획 과목이 면제된다.

1차 시험장소는 서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이며 응시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하고, 해당 응시장소가 마감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비장소로 임의배정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접수처(031-260-4417~8)에 연락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bea.kemco.or.kr)의 FAQ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 건축문화신문 인터넷판 오픈

건축계 정론지 건축문화신문의 인터넷판과 모바일 버전이 지난 6월 10일 오픈됐다. 이에 따라 인쇄매체로만 발행되던 건축문화신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ancnews.kr이며, 모바일버전은 m.ancnews.kr이다.



건축문화신문 홈페이지 화면



건축문화신문 모바일 화면

## 대한건축사협회, '탄자니아 잔지바르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 지원

대한건축사협회가 국제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SBS, 굿네이버스와 함께 '탄자니아 잔지바르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협회는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설계(자재협찬 등)를 지원하며, SBS와 굿네이버스는 KOICA 자금 확보, 현지정보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특히 협회는 희망학교 설계를 비롯해 설계이후 건축과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건축대상지 현지조사, 설계니즈 파악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건축사 회원 1인 1만원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여 협회 사업비를 확보하고, 필요 시 협회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잔지바르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억 원(건축비 50%, 교육운영비 50%)을 예상하고 있다.

